국어방정식
공식으로 명쾌하게, 국어도 방정식처럼!

쌍주기연

작자 미상 · 영웅소설·국문 고전소설
2025년 3월 고1 · G202503H1
원문 읽기 · 그림 요약 · OX 40 · 객관식 15 · 정답과 근거

기본 → 심화 → 최고난도 순으로 읽고 판단합니다. 오답은 원문 근거와 대조하여 바르게 고쳐 쓰세요.

목차

샘플 4쪽 · 아래 항목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표지·목차	1쪽
암기 그림 — 첫 페이지	2쪽
어휘 그림 해설 — 첫 페이지	3쪽
실전 5지선다 1부 · 일반 — 문제 첫 페이지	4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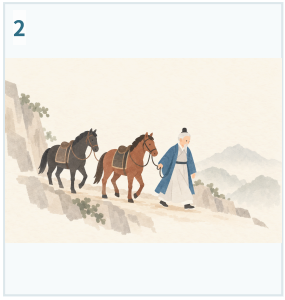
본문 [번호]는 이 학습지의 문단 번호입니다. 해설의 근거 번호와 연결하여 읽으세요. 발췌 범위 밖의 줄거리와 구분합니다.

배포번호 G202503H1-SR-REV20261022-R3

② 암기 그림 — 4묶음 × 3컷

암기 그림 1 · 섬의 유배지 → 승전과 기다리는 만왕







섬의 유배지 → 천리마로 탈출 → 승전과 기다리는 만왕

1. 섬의 유배지 [1] [2] [3] [4]

태자는 볼모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차마 실행할 수 없다며 서경을 놓아 주겠다고 한다. 훗날 부왕과 나라를 구해 달라는 부탁도 함께 하므로 인정과 보답의 기대를 함께 읽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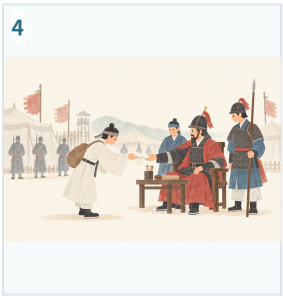
2. 천리마로 탈출 [5]

서경은 태자가 준비한 천리마를 타고 종자와 함께 명나라 진영으로 향한다. 떠나는 주체는 태자가 아니라 서 안무사이며 앞의 방면 약속이 행동으로 실현된다.

3. 승전과 기다리는 만왕 [6] [7]

서 원수는 잃은 고을을 회복하며 전과를 올린다. 반면 만왕은 군영의 문을 닫고 서경이 잡혀 오기를 기다려, 독자가 아는 탈출과 다른 기대를 품는다.

암기 그림 2 · 군영으로 온 서찰 → 부자 상봉







군영으로 온 서찰 → 편지 속 이름 없는 은인 → 부자 상봉

4. 군영으로 온 서찰 [8] [9] [10]

서 원수는 만왕이 응전하지 않아 묘책을 의논하던 중 편지를 받는다. 직접 상봉하기 전에 서찰을 읽는 단계가 뒤의 인식과 감정을 준비한다.

5. 편지 속 이름 없는 은인 [11]

서경은 자신을 밝히지만 도와준 이는 이름 없이 적고 대원수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쓴다. 독자가 앞에서 아는 태자의 도움과 편지에 실린 정보의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.

6. 부자 상봉 [12] [13] [14]

아들은 서찰을 읽고 부친을 맞아 큰 감정에 쓰러진다. 아버지는 여섯 살 때와 달라진 아들을 바로 알아보기 어렵다. 같은 상봉에서도 정보와 기억의 조건이 다르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

③ 어휘 그림 해설 — 12컷



1. 안무사

뜻 백성을 위무하고 살피는 임무로 파견되는 관리.

배경 서경이 맡은 직책이며 남만국에 억류되었다.

작품 속 쓰임 서경이 맡은 직책이며 남만국에 억류되었다.



2. 볼모

뜻 상대를 제약하거나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 붙잡는 사람.

배경 만왕은 서경을 이용해 서 원수의 귀순을 얻으려 한다.

작품 속 쓰임 만왕은 서경을 이용해 서 원수의 귀순을 얻으려 한다.



3. 천리마

뜻 하루 천 리를 간다고 일컫는 매우 좋은 말.

배경 태자가 심복에게 두 필을 준비시켜 탈출을 돕는다.

작품 속 쓰임 태자가 심복에게 두 필을 준비시켜 탈출을 돕는다.



4. 표문

뜻 임금에게 올리는 글.

배경 승전 보고와 태자의 책봉 건의에 쓰이지만 두 글의 기능은 다르다.

작품 속 쓰임 승전 보고와 태자의 책봉 건의에 쓰이지만 두 글의 기능은 다르다.



5. 군영·중군

뜻 군대가 머무는 진영과 군대의 중심 진영.

배경 서찰 전달·재회·항복이 이루어지는 군사적 공간이다.

작품 속 쓰임 서찰 전달·재회·항복이 이루어지는 군사적 공간이다.



6. 서찰

뜻 편지.

배경 서경의 신원과 방문을 알리지만 은인의 이름은 쓰지 않는다.

작품 속 쓰임 서경의 신원과 방문을 알리지만 은인의 이름은 쓰지 않는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

실전 5지선다 1부 · 일반 1~5

1.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? ㄱ. 태자가 직접 항복한다. ㄴ. 태자가 서경을 놓아 준다. ㄷ. 서경의 서찰이 전달된다. ㄹ. 부자가 재회한다. ㅁ. 태자의 책봉을 건의한다.

① ㄴ→ㄹ→ㄷ→ㄱ→ㅁ

② ㄷ→ㄴ→ㄹ→ㄱ→ㅁ

③ ㄴ→ㄷ→ㄱ→ㄹ→ㅁ

④ ㄴ→ㄷ→ㄹ→ㄱ→ㅁ

⑤ ㄹ→ㄴ→ㄷ→ㄱ→ㅁ

2. [2]의 태자 발언에 나타난 태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「소자에게 대인을 군중으로 데려오라고 명하셨지만」[2]에서 보듯 부왕의 명을 그대로 따르며 신하의 도리를 지키고 있다.

② 은혜를 베풀면서 그 대가로 훗날의 구원을 미리 청하고 있다.

③ 「볼모로 삼아 아드님으로 하여금 귀순케 하고자」[2]라 하여 상대의 목숨을 담보로 나라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.

④ 「소자가 이를 차마 행하지 못하오리다」[2]에서 보듯 아무런 조건 없이 놓아 주며 연민만을 드러내고 있다.

⑤ 「천리마 두 필을 준비하게 하였사오니」[2]라 하여 자신의 공을 내세워 상대의 보답을 강요하고 있다.

3. [11]의 서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「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서」[11]라 하여 은인의 이름을 밝혀 서원수가 곧바로 태자를 알아보게 한다.

② 「목숨을 보전하여 달아나 왔나니」[11]로 보아 스스로 탈출했음을 강조하여 담대함을 부각한다.

③ 「만왕의 명으로 십여 년 동안 만국에서 치욕을 감내하던」[11]으로 보아 만왕이 놓아 주었음을 알려 전말을 밝힌다.

④ 「오신 대원수는 뉘신지 몰라도」[11]에서 보듯 서찰이 위조된 것임을 암시하여 긴장을 높인다.

⑤ 서경의 신원은 밝히지만 은인의 이름은 적지 않아, 독자가 아는 정보와 편지로 전달되는 정보에 차이가 있다.

4. [14]의 「어찌 알아보리오」와 [22]의 「어찌 감격하지 않으리오」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「살아서 서로 만났으니 기쁘기 그지없다만」[16]처럼 작중 인물이 상대에게 직접 건넨 말이다.

② 「내 서 안무사가 오늘날에 제일로 알았더니」[27]처럼 주인공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독백이다.

③ 서술자가 대화 밖에서 끼어들어 인물의 사정과 속을 대신 말한 것이다.

④ 「태자를 봉하여 대대로 천자의 은혜를 감사하도록」[28] 하듯 결말을 미리 알려 긴장을 낮추는 구실을 한다.

⑤ 「내 어찌 그대의 인정 어린 마음을 잊으랴」[4]처럼 인물의 말을 그대로 옮겨 현장감을 살린 것이다.

5. 윗글의 갈래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실존 인물의 가계를 시간 순으로 밝히는 전(傳)의 형식을 따른다.

② 「적장 수십 명을 죽이며 승승장구하여」[6]처럼 전쟁과 무공을 다루면서 가족의 이산과 재회를 함께 엮는다.

③ 만왕과 태자의 서로 다른 대응을 통해 적대국 내부에서도 인물의 가치가 구별된다.

④ 「손무, 오기와 제갈량에 버금가오」[19]처럼 중국의 고사와 한자어를 끌어와 인물과 상황을 규정한다.

⑤ 「마음속으로 칭송하였다」[26]처럼 작품 밖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내면을 두루 서술한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